

대불련 미래 봄날 새싹처럼 활기 넘쳐요

대불련 첫 전국 신입생 환영회



'선택강좌' 시간에 학생들이 연등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환영문화제'에서 충남대 불교학생회 풍물대 '벼랑'이 공연을 하고 있다.



'알 범우'를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학생들.



목탁집전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홍현, 이하 대불련)가 재도약을 위한 날개짓에 여념이 없다. 재정 등 물적 토대가 약하고 갈수록 회원들이 줄어가고 있지만,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포(弘布)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김홍현 회장은 제주지역 대불련을 재건하기 위해 10여일간 제주의 전 대학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불련 역사상 최초로 전국 대학 신입생 불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4월 9~10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65명 신입생들과 86명 재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05 대불련 마니아-전국 신입생 환영회'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MT시즌'인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신입생으로서 불교를 배우고 나아가 불교학생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고민들을 나눴던 이번 환영회 현장은 대학생다운 '발랄함'과 불자다운 '진지함'이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였다.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봄비가 내린 4월 9일, 전국 불교학생회 신입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부처님이 아셨는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는 밤늦은 시각이 돼서야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환영회는 학생들의 설레임과 활기로 넘쳐났다.

"대불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대학생 불자들의 모임으로 전국 180여개 대학에 지회가 있습니다."

"대불련 역사와 현황"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자 신입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강대 새내기



4월 9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렸지만 대불련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다보수련원 현정의 날씨는 청명했다. 밝은 표정으로 울음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4월 9~10일 다보수련원서 환영회...전국 150여 학생 동참 연등 만들기·목탁 집전 등 '기초' 배우며 내실 있는 활동 다짐

상미는 "선배들에게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상미는 "규모에 맞게 더 내실 있고 활기찬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한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진행된 법등(조) 모임, 전국에서 온 재학생과 새내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10개의 법등을 만들었다. '불교학생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불교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와 같은 주제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1법등 좌장을 맡은 장지혜 서울지부장(동덕여대 불교학생회장)은 "선배로서 활동을 잘 하고 있지 못해 후배들에게 부끄럽다"면서도 "각 대학 불교학생회 현황을 얘기할 때는 선배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줬다"고 전했다.

저녁 공양 후 진행된 환영문화제에서 학생들은 노래와 율동, 퓨전국악 공연이 계속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또 종이와 빨대, 종이컵 등을 이용해 2m 높이에서 계란을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는 게임 '알 범우를 지켜라'에서는 전 법등원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어색함을 떨쳐버린 둘째날 신입생들의 의지와 패기가 곳곳에서 느껴진다.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됐음에도 신입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다.

수련원 큰법당에서 진행된 '불교기본예절' 강좌에 참여한 운운(충북대)이는 강사의 지도에 따라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향을 사른다. 너무 썩직한 걸을 때문에 경내가 울려 지직을 받았지만, '초보' 수준은 넘었다며 칭찬을 받았다. 다음에 짚어 가면 학생회 동기들에게 법당 예절부터 가르쳐줬다며 큰소리를 친다.

상명(제주산대)이와 용성이, 주성이(이상 제주대)는 함께 비행기를 타고 행사에 참여했다. 셋은 제주 우리집 주지 인성 스님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환영회에 참석하기도 못했을 거라고 했다. 뉴욕처럼 많은 조건이 불교학생회 생활이지만 세 명의 신입생들은 연등을 만들면서 사귀는 학교 친구들을 새 '도반'으로 맞은 것이 큰 소득이다.

국립간호대의 유일한 신입생 정래는 환영회에 와서 목탁을 처음 잡았다. 지도간사의 말을 들으며 목탁을 두드려 보지만 소리가 영 시원찮다. 그래도 학교에 돌아가면 정기법회에서 여자선배 4명을 제치고 자기가 꼭 집전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신입생들은 이렇게 대불련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지만, 행사를 마친 신입생들은 "우리는 대불련 마니아"라며 부처님 마음처럼 이미 하나가 돼 있었다.

충남대 김태연 불교학생회장은 "2001년에 이런 전국 행사가 있었으면 더 발전하는 대불련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불련에 대해 알게 됐고 각자에게 활동의 방향을 가르쳐준 환영회는 신입생들에게 봄날 새싹에 내리는 한줄기 비와 같았다.

"대불련의 미래" 신입생들은 어느새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다섯 바구가 전법(傳法)의 길에 나설 때와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학교로 돌아갔다.

괴산=유철주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최재 뒷얘기

지원 너무 없어 하루하루가 '고달파'

43년 대불련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신입생 환영회를 마련한 김홍현 회장은 행사전 "행사가 잘 되도록 고민이고 안 되도록 고민"이라는 말을 했다. 학생들이 많이 오면 적자 예산을 감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활동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힘써해 3개월간 환영회를 준비했다"고 밝힌 김 회장은 "어찌됐든 잘된 행사를 만들어야 대불련이 지평을 넓혀 갈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부처님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며 분주히 행사장을 누빈다.

대불련의 이러한 고민은 비단 어제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학 동아리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교계의 지원이 너무나 미미해 대불련은 하루하루가 '고달픈'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다행히 대한불교진흥원이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해줘 시름을 놓았지만, 이러한 고민은 1년 내내 집행부원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숙제'가 될 것 같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용을 새겨 드립니다.



연꽃지킴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x45cm 액자: 47x64cm



달마 8호-그림: 35x68cm 액자: 47x88cm



달마 10호-그림: 45x75cm 액자: 58x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